

□ 루마니아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에너지 산업 현황 및 전망]

□ 일반 현황

○ 루마니아는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국내 수요의 상당부분을 자체 적으로 조달하고 있음. 2003년의 경우 원유는 690만톤을 생산하여 국내 수요의 53%, 천연가스는 1,061만톤을 생산하여 77%를, 석탄은 760만톤을 생산하여 71%를 자체적으로 수급하였음.

○ 최근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향후 2015년까지 에너지 수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연간 전력소비 증가율 : 2.7%
- 갈탄(lignite) : 3천만톤 생산
- 천연가스 : 60-65% 자체 수급
- 원유 : 85% 자체 수급

○ 루마니아 전력과 천연가스 시장은 매년 단계적으로 개방비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EU 가입 목표년도인 2007년에 완전 개방될 예정임.

＜ 연도별 전력 및 천연가스시장 개방 계획 ＞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2006년초	2007년 1.1
전력	40%	55%	80%	100%
천연가스	40%	50%	75%	100%

○ 루마니아 에너지 산업은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부분 발전회사들은 향후 1~2년 이내에 민영화를 완료해야 하나, 전력 송전업체(TRANSELECTRICA사), 가스 송전업체(TRANSGAZ사), 가스 생산업체(ROMGAZ사)는 민영화에서 제외되어 정부가 계속해서 관리할 예정임.

○ 2004년 6월에 루마니아 지역 전력공급사인 Electrica Banat社와 Electrica Doborjea社가 이태리 Enel社에 매각되었으며 지역 천연가스 유통업체인 Distrigaz Nord社와 Distrigaz Sud社는 민영화가 진행중에 있음.

□ 전력(電力)

○ 2003년 루마니아의 총 전력 소비량은 575억 kWh/mill.KWh이며 이중 98.3%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1.7%를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고 있음. 이중 화력 67.2%, 수력 24.1%, 원자력이 8.7%를 차지하고 있음.

＜ 루마니아 연도별 전력생산구조 ＞

(단위 : TWh)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2015년
수력발전	17.04	17.00	17.00	17.20	18.00
원자력발전	5.34	5.34	5.34	10.68	16.02
화력발전	33.72	36.96	37.76	37.02	38.88
갈탄	17.30	17.50	17.80	18.00	18.00
무연탄	5.29	5.53	5.53	5.93	5.93
탄화수소	11.13	13.93	14.43	13.09	14.95
합계	56.1	59.3	60.1	64.9	72.9

○ 루마니아 원자력발전은 Cernavoda에 1호기가 1998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루마니아 전력수급의 8.7%, 연간 5.34TWh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2호기가 캐나다 AECL社와 이태리의 ANSALDO社와의 합작으로 2010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3호기가 201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동 계획에 참여하고 있음.

□ 원유, 천연가스

○ 루마니아는 690만톤의 원유와 1,061만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담당회사는 아래와 같음.

- Romgaz社 : 생산과 저장
- Transgaz社 : 운반
- Distrigaz Nord社, Distrigaz Sud社 : 유통

○ 루마니아 최대 정유공사인 Petrom社는 금년 7월 오스트리아의 OMV사가 민영화 입찰에서 계약자로 선정되어 Petrom社 민영화는 내년 초까지는 완료될 예정임.

○ Petrom社는 연간 6백만톤의 원유와 60억큐빅미터의 천연가스를 처리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전국에 700여개 주유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헝가리와 몰도바에도 지사를 두고 있음.

[한국 기업의 참여 현황 및 가능성]

○ 루마니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IT산업과 함께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 특히 루마니아는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남동 및 중동 유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에너지자원 개발, 공급, 유통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미국 및 EU로부터 많은 원조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노후화된 발전설비 교체와 신규 발전 공장 건설을 위해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고 있음.

○ 이러한 프로젝트에 우리업체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현대건설이 열병합 발전설비 건설 공사를 지난해에 완료하였으며, SK건설이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의한 발전설비 건설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체르나보다 원자력발전소 3호기 건설공사에 참여를 추진중에 있으며, 여타 발전회사들도 현지의 발전설비 노후화 교체 프로젝트등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 루마니아 정부 및 업체들은 우리업체들의 건설 기술 및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고, 보다 많은 우리업체들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음.

○ EU기금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과거에는 EU국가들이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입찰요건이 강화되어 입찰요건에 부합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우리업체의 참여가 어느 산업부분보다도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경우 미국 및 일본, 중국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어, 우리업체들은 동분야 보다는 에너지분야에 우리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의처 : 부카레스트무역관 박종근 kotrabuh@kotra.ro)